

중국 고등교육 발전전략에 관한 소고

이동희

수원대학교

Development Scheme of Higher Education in China

Dong-Hee Rhee

University of Suwon

요약

본 고에서는 현재 중국에서 추진되고 있는 고등교육 부문에 대한 진홍시책을 “211工程”을 중심으로 조망해 보았다. 등소평의 중점대학 육성 구상에 따라 중국 국내의 제반 여건을 고려하여 “九五”기간 중에 개시된 “211工程”的 주요내용은 國家重點大學과 國家重點學科 건설 사업이다. 江澤民 집권 후에는 “科教興國”을 기본국책으로 설정하여 教育部내의 科學技術司에서 기지건설과 인재양성을 중점적으로 담당하면서 과학기술교육을 고등교육 발전의 기본축으로 삼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중국의 경우 이와 같은 국가 주도적인 진홍책은 중국공산당중앙위원회(中共中央)와 국무원의 방침 결정에 따라 집중육성(重点) 항목 결정 및 관리를 국무원 산하 유관부문이 상호 협조 하에 분담하여 지원하고 있다.

Key Words : “211工程”, 國家重點大學, 國家重點學科, 기지건설, 인재양성

1. 서 론

중국은 2001년 12월 11일 정식으로 WTO의 143번째 회원국이 되었으며, 이것은 중국의 대외 개방과 현대화 건설 과정에서 역사적 의미를 가지는 일대 사건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는 중국 정부가 개혁을 심화하고 개방을 확대하고자 하는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서, 세계 각국과의 경제 무역 협력 발전을 중시하고자 하는 중국정부의 적극적인 태도를 표명한 것으로, 또한 중국의 대외 개방이 새로운 도약의 단계로 접어들었음을 의미하며, 새로운 세기의 중국 경제와 세계 경제 발전에 광범위하고 심오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중국의 WTO 가입은 한중 경제 무역 관계에도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이미 2002년 8월 24일 한중 수교 10주년을 지나 금년은 수교 11년째를 맞이하고 있으며, 이 10여년 동안 한중 경제 무역 협력은 많은 사람들이 놀랄만한 발전을 이루었다.

이와 같은 과정에서 현재 우리 국내의 중국에 대한 관심은 기본적으로 경제교류와 문화교류 등의 방면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반면, 과학기술 부문에 있어서의 교류는 상대적으로 미미한 수준에 머물고 있음을 느끼게 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과학기술부, 정보통신부, 산업자원부, 교육인적자원부등 정부 각 기관에서 국내 과학기술발전을 위해 각종 지원 시책을 수행하고 있는 것과 유사하게 중국의 경우에도 현재 과학기술을 전략적으로 발전시키고자 국가차원에서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이와 같은 과학기술 발전 전략의 일환으로 고등교육기관인 대학을 중점적으로 지원 육성하는 정책을 추진해 오고 있으며, 본 고에서는 이와 같은 중국의 고등교육 발전전략에 대한 내용을 검토해 볼 것으로써 과학기술 및 고등교육 방면에서의 대중국 이해 제고를 도모해 보고자 한다.

2. 중국의 고등교육 개혁 구상

1977년 7월 당시 갓 복권한 邓小平은 “일군의 重點大學을 중점적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음(要抓一批重點大學)”을 강조하였다. 즉, 그는, 일급 과학자 및 공학자를 배양함으로써 과학기술 발전을 가속화하고, 4개 현대화(농업, 공업, 과학기술, 국방)계획의 고도화를 이룩하여 과학기술 혁명에의 도전에 맞서고, “要抓一批重點大學”을 강조함으로써 중국에서의 重點大學 건설에 대한 새로운思考의 틀을 제시하였다.

이어서 1983년 6월에 중국 武漢의 東湖에서 개최된 대학업무회의(高校工作會議)에서 중국 교육부는 중국의 고등교육사업을 가능한 한 신속히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논의를 하였다. 여기서 문혁(無產階級文化大革命) 10년(1966-1976) 간의 소요로 인하여 대학이 중재해지구로 되어 심대한 피해를 입고 기회 상실이 커 교육을 우선적으로 발전시킬 것이 필수적이라는 점이 사회 전체적으로 중시됨을 명확히 하고, 다만 중국의 경제사정이 아직 상당히 낙후되어 있고 개혁개방정책을 시작한지 수년에 불과하여 교육 분야에 대해 일시에 대규모 투자를 함이 시기상조라는 의견이 나왔다.

그러나 당시 회의에 참석하였던 원로교육가 4인이 연대하여 中共中央(中國共產黨 中央委員會)에 제출한 “50교 전후의 대학을 국가 중대건설항목 중에 포함시키는 건의(關於將50所左右高等學校列為國家重大建設項目的建議:835建議)”에 의하면 국가가 50교 대학에 50억 원을 중점 출연하여 이들 대학이 90년대에는 기구 및 설비상 국제적 선진수준에 이르도록 할 것을 건의하고 있다. 이 건의는 中共中央에 의해 접수 수리되어 邓小平을 비롯한 中央의 지도자들이 고도로 중시하는 사안이 되었다. 그러나 중국의 당시 여건에 의해 국가에서는 5억 원을 출연하여 5개 대학(清華大學, 北京大學, 復旦大學, 上海交通大學, 西安交通大學)에 지원하여 “75(7차5개년계획)”, “85(8차5개년계획)”기간 중의 국가중점 투자대학으로 정함으로써 이들 대학은 10년 동안에 각각 2억 원을 받게 되어 國家教育委員會(1998년 현재의 教育部로 개명) 소속 36개 대학 중의 “重中之重”으로 되었다.

한편 1990년대 초에 들어, 중국의 国家교육위원회는 “211”工程의 구상을 제출하여 착수하였으나 그

당시에는 큰 반향을 일으키지 못하고 그 후 점차 인식의 일치를 이루게 되었다. 이 “211”工程이란 21세기에 100교 전후의 대학과 일군의 중점학과를 중점 건설하는 계획을 가리킨다.

1994년에 이 구상은 <중국의 교육개혁 및 발전 요강(中國教育改革和發展綱要)>에 수록되었으며, 이 <綱要>의 실시 의견으로 중국 國務院은 “211공정은 약간수의 대학이 21세기 초에 국제 일류대학의 학술 수준에 도달 혹은 접근할 것을 요구”한다고 하였다.

“95(9차5개년계획)”기간(1996-2000) 중에 “211”工程은 전면적으로 시작되었다. 1995년에 시작되어 이 工程은 각項目 건설을 위한 立項 심의작업을 기본적으로 완료하고 수년간의 노력을 거쳐 부문 예심을 통과한 대학은 “211工程”項目을 전면적으로 건설하기 위한 실시단계에 진입하였다. 1998년 말에 이르러 국가는 중점건설 대학 61교를 확정하였고, 그 중 교육부 직속 대학(院/校) 25교, 기타 部委 소속 대학 32교, 省所屬 대학 4교에 이르렀다. 350개의 重點學科와 아울러 이 두 가지 고등교육 공공서비스체계의 立項 건설에 130여억 원의 건설자금이 배분되었고, 그 중 中央專項資金이 약 28억 원이며, 50% 이상의 항목에 대한 건설이 착공되었으며, 中央專項資金 누계는 16억 원에 이른다.

한편, 세계적으로 보아 21세기 지식경제사회의 단초가 이미 나타나 국력경쟁이 날로 치열해지는 과정에서, 江澤民을 핵심으로 하는 제3대 中央지도층은 당금의 세계적 발전추세를 정확히 파악하여 과학교육흥국(科教興國) 방안 실시라는 정책적 결정을 작성하여 15大(제15차 중국공산당 전국대표회의 : 1997년 9월 개최) 및 제9기 전국인민대표자회의 1차회의에서 중국의 기본국책으로 확정하였다. 당시 朱鎔基 총리는 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科教興國戰略의 실시는 이번 정부의 가장 중요한 임무 중의 하나라고 말하고, 스스로 國家科教領導小組의組長을 담당하였다.

1998년 5월 2일에는 李嵐清 부총리가 세계대학총장논단의 개막식 강연에서 “(중국은) 다음 1세기 (즉 21세기)에는 세계 일류대학의 반열에 드는 일군의 대학을 가질 수 있도록 매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동년 5월 4일에는 江澤民 총서기가 北京大學 建校

100주년 경축대회에 참석하여 “현대화를 실현하기 위해 우리(中國)는 세계 선진수준의 몇 곳의(若干所) 일류대학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는 강연을 하였다.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쳐 1998년 12월 24일 중국 교육부는 <面向21世紀教育振興行動計劃>을 제정하고 “若干所”를 정식으로 그 내용 중에 올렸다. 이에 따라 1999년 12월 24일에는 교육부와 해당 지방정부는 清華大學, 北京大學, 南京大學, 復旦大學, 上海交通大學, 西安交通大學, 中國科學技術大學, 哈爾濱工業大學, 浙江大學 등 9교를 국가 1차 건설 若干所 重點大學으로 협의, 확정하여 각각 조인하였다.

3. “211工程”-爲科教興國奠基(과학교육을

홍국의 기초로 함)

“211工程”은 중국의 教育史에 있어 초유의 대규모적 고등교육 건설항목이다. 이는 중국의 共產黨과 國家(즉 國務院)가 고등교육사업을 고도로 중시함을 나타낸다. 이 “211工程”이란 21세기를 맞이하여 100교 전후의 대학과 일군의 중점학과를 중점적으로 건설하고자 하는 중국의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 앞에서도 기술한 바와 같이 “211工程”은 1995년에 국민경제 및 사회발전 제9차 5개년계획에 정식으로 열입(列入)되어 실시되기 시작한 후 5년간의 시행과정을 거치면서 사회적으로 거대한 반향을 불러 일으키면서 사회 각계로부터 광범한 주목을 받았다.

이 “211工程”이 시작된 이래 그 건설이 순조롭게 진행되어 현재까지 98개 대학이 건설항목 대상으로 확정되었으며, 602개의 重點學科가 건설항목으로 안배되었다. 그 중 인문사회계가 62개로 10%, 경제정법계가 57개로 10%, 기초과학계가 89개로 15%, 환경자원계가 42개로 7%, 기초산업 및 고급신기술분야가 255개로 42%, 의약위생계가 66개로 11%, 농업계가 31개로 5%를 점하고 있다.

“95”기간 중 “211工程” 건설을 위한 자금 예산 총액은 中央專項資金 27.55억元을 포함하여 약 183억元으로, 그 중 중점학과 건설자금으로 63.88억元, 공공서비스체계 건설자금으로 35억元, 기초시설 건설자금으로 10.06억元, 부설시설 건설자금으로 73.32억元이 사용되었다(“211工程”簡介). 이 “211工

程”的 성과를 중국 교육부에서 공표한 한 자료 (“211工程”是科教興國戰略的基礎工程)에서는 다음과 같이 정리해 놓고 있다.

- (1) 호기를 잡아, 개혁을 심화시키고, 고등교육체계의 발전 및 진보를 추진하였음
- (2) 학과구조가 진일보하여 우수하게 되고, 학과 전성의 수준이 전면지급로 제고되었으며, 과학 전연(frontier)영역 연구 및 중요 과학기술문제 해결 능력이 현저히 확대 증강되었음
- (3) 학과건설 및 사회, 경제발전간의 결합이 한층 긴밀해 졌으며, 대학이 국가경제건설 및 사회발전의 활력소 역할을 강력하게 제공하였음.
- (4) 창조적인재의 배양을 중시하여, 고급인재의 배양능력 및 그 질이 제고되었음.
- (5) 교수진 건설을 강화하여, 중장년 핵심 학술인력을 배양할 조건을 이룸
- (6) 자금투입을 확대하여 학교경영조건을 개선하고 시설 장비 수준을 최대로 제고시켰음.

이와 같은 대학의 과학기술교육을 진흥시키기 위하여 중국 정부는 교육부 내에 科學技術司(우리나라의 局에 해당하는 부서)를 설치하여 대학의 과학기술 관련 업무를 총괄하고 있다. 이 科技司의 重點工作 업무는 크게 基地建設과 人才培養으로 구분되는데, 基地建設에는 1)國家重點實驗室, 2)教育部重點實驗室(이전의 教育部開放實驗室), 3)國家工程研究中心, 4)國家工程技術研究中心, 5)大學科技園사업이 포함되어 있으며, 人才培養에는 1)跨世紀優秀人才 배양계획, 2)대학핵심교수요원 보조계획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211工程”的 주요 건설 업무를 이 科技司에서 담당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중국 교육부 자료에 의하면, 중국의 경우 2003년 1월 현재 일반대학(普通高校)이 1396校(本科大學 629校, 專科大學 767校)로 집계되고 있는데, 그 중 教育部에 직속되어 있는 대학은 71교에 불과하고 그 대부분이 各省, 直轄市, 自治區에 소속되어 있으며, 일부 대학은 해당 政府部門에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중국 정부에서는 유관부문 간의 협조 하에 “211工程”을 추진하고 있다.

국가중점실험실 사업을 예로 들어 살펴보면, 2000년말 기준으로 160所가 지정되어 있는데(2001년에는 164소로 증가) 이를 部門 및 지역에 따라 분류해 보면 각각 표 1 및 표 2와 같다. 표 1에서 보면

國防科工委의 경우 그 산하에 哈爾濱工業大學, 北京理工大學, 北京航空航天大學, 西北工業大學 등을 두고 있는데 이들 대학에 설치된 국가중점연구실은 이 위원회에서 예산을 배정받게 된다. 이와는 달리衛生部의 경우에는 그 산하에 있는 中國醫學科學院(中國協和醫科大學과 합병되어 院校체제 운영, 즉衛生部과 教育部의 2元 감독, 지원 체제)이 있어 이곳에 집중적인 지원을 하고 있으나, 上海市 소속의 上海第2醫科大學의 국가중점실험실에도 경비를 지원하고 있다. 다만 中國科學院은 중국 國務院 산하의 直屬事業單位로서 그 산하의 中國科學技術大學을 포함하여 독립적인 국가중점실험실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표 1. 中國 國家重點實驗室 部門分類

國防科學技術工業委員會 (4)	國家計劃生育委員會 (1)	教育部 (94)
農業部 (3)	衛生部 (6)	中國科學院 (52)

표 2. 中國 國家重點實驗室 地區分類

安徽 (3)	北京 (48)	福建 (2)
甘肅 (4)	廣東 (4)	貴州 (10)
海南 (1)	河北 (1)	黑龍江 (2)
湖北 (9)	湖南 (3)	吉林 (7)
江蘇 (10)	遼寧 (9)	山東 (2)
山西 (1)	陝西 (10)	上海 (25)
四川 (6)	天津 (5)	雲南 (1)
浙江 (5)	重慶 (1)	

한편 표 2에 의하면 北京 소재대학에 30%, 上海市에 15% 정도의 국가중점실험실이 지정되어 있는데 이는 清華大學(10개: 단 2003년 현재15개), 北京大學(8개: 단 200년 현재 13개), 復旦大學(5개), 上海交通大學(4개)을 비롯한 중국의 대표적인 연구 중심대학이 이들 지역에 밀집되어 있기 때문이다. 한편 國家工程技術研究中心은 과학기술력이 탁월한 중점과학기술연구기구나 과학기술형 기업 또는 대학에 위임하여 중국의 일급 공정기술 연구개발, 설계 및 시험 전문가를 이용함으로써 기업과 밀접히 연관된 다양한 종합서비스를 제공하고 동시에 양호한 순환발전적 연구개발 기체를 구축하고자

하는 사업이다. 현재 농업, 에너지원(能源), 제조업, 정보(信息) 및 통신, 생물기술, 재료, 건설 및 환경보호, 자원개발이용, 輕紡業, 의약위생 등의 영역에 걸쳐 중국내 20여개 省市自治區에 103개의 國家工程技術研究中心이 운영되고 있다. 또 한가지 언급할 것은 大學科技園의 설립 및 운영이다. 이 大學科技園 사업은 우리나라의 사이언스파크(Science Park)와 창업보육사업과 유사한 성격을 가진 것으로, 대학의 인적자원을 충분히 이용하여, 대학의 인적자원 및 기술적 수월성을 활용함으로써 과학 중국이라는 전략적 요구에 부응할 뿐만 아니라 중국의 산업 및 경제경쟁력을 위한 전략적 선택으로서 시행된 것이다. 중국 科技部의 보도자료(辦好大學科技園是時代發展的客觀需要)에 의하면, 2001년 현재 22개 국립대학과 기관이 모두 67개 대학에 의탁하여 이미 건설되었거나 건설 중인 보육기관의 총면적이 256.55만m², 기숙성 기업은 459개로 보육 기업 총수의 20.7%를 점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아울러 “十五”기간 중에 100개 전후의 大學科技園을 중점건설하여 그 중 50소 전후를 시범적 國家大學科技園으로 하고, 20소 전후를 특색이 선명하고 실적이 우수한 국내 일류 대학과 기관으로 하며, 일부를 국제적 대학과 기관으로 발전시키고자 계획하고 있다.

4. 결론

본 고에서는 현재 중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고등교육 부문, 즉 대학에 대한 국가적 차원에서의 발전시책에 대해 개괄적으로 살펴보았다. 총체적으로 보아, 중국의 경우 鄧小平의 改革開放政策 제창 이래, 科教興國의 가치 아래 과학기술분야에 대한 적극적인 진흥책을 시행해 오고 있다. 그 대표적인 사업이 中國教育部 科學技術司에서 추진하는 國家중점실험실 사업, 교육부중점실험실 사업, 國家공정연구중심 사업, 國家공기술연구중심 사업, 대학과 기관 사업 등의基地建設 사업과 “211工程”을 기반으로 한 人才養成 사업으로서 이들 사업은 기본적으로 中共中央과 國務院의 정책 결정에 의해 국무원 산하 29개 組成部委, 17개 直屬機構, 9개 直屬事業單位(中國科學院 등) 중 有關部門이 상호 협조하여 재정 지원 및 관리 감독을 통하여 기본적으로 대학의 인적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다.